

## 『東醫寶鑑』의 望診圖像에 관한 연구

<sup>1</sup>한봉재, 차웅석, 김남일<sup>1</sup>경희대학교 의사학교실

## A Study on Tests of Inspection Drawings in &lt;Dong-uibogam&gt;

<sup>1</sup>Han Bongjae, <sup>1</sup>Wung-Seok Cha, <sup>1</sup>Nam-Il Kim<sup>1</sup>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Drawings are images or shapes of objects expressed on a flat surface using lines and colors. They not only make literal interpretations whole, supplement their meaning, but also expand them as well. Within the texts of <Dong-uibogam>, a total of 19 drawings can be found. Considering the position of <Dong-uibogam> in the history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on these drawings hold much importance.

There are 19 diverse drawings in <Dong-uibogam>. As a result of thorough examination on these drawings, several characteristics could be found. First, out of the 19 drawings in <Dong-uibogam>, six are about diagnostics, which are 明堂部位 · 觀形察色圖 · 三關圖 · 五輪之圖 · 八廓之圖 · 六部脉圖. Next, 身形臟腑圖 and 五臟圖 have to do with the viscera and bowel theory. 五行盛衰圖 十干起運圖 · 十二支司天訣 are about the five circuits and six qi, while 催生符 and 安產方位圖 are drawings related to obstetrics and gynecology. Lastly, 九宮圖 and 九宮尻神圖 can be found in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hapter. As a result, we can roughly categorize the drawings of <Dong-uibogam> into diagnostics, viscera and bowel, five circuits and six qi,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is research is on two drawings of 明堂部位와 觀形察色圖.

Keywords : Dong-uibogam(東醫寶鑑), Tests of Inspection(望診), Drawing(圖像)

## 序論

## 1. 연구의 필요성

圖像은 선이나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말한다. 圖像은 문자와 서로 잘 어울리기도 하여 문자와 어울렸을 때에는 해석을 온전하게 하고 그 뜻을 보충하고 확장시키기도 한다.

한의학의 이론은 대부분 문자로 표현되고 전수되어져 왔으나, 의서에 실린 圖像도 저자의 생각을 보충하고 또 함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東醫寶鑑』의 「內景篇」에 있는 ‘身形臟腑圖’가 허준의 한의학적 인체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醫學入門』의 ‘先天圖’가 인체에 관해 논하기 이전에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더욱 중요시한 의학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한의학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圖像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동안 ‘身形臟腑圖’와 관련된 장부도에 관한 연구와 일부 圖像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그것도 중국의 의학서적에 실린 장부도 및 경락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의서에 실린 圖像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그 진면목을 알 수가 없었다. 우리 의서에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圖像이 수록되어 있는데, 『醫方類聚』에는 가장 풍부한 圖像이 수록되어 있다.<sup>1)</sup> 특히, 『醫方類聚』에 수록된 圖像 중에서 중요한

접수 ▶ 2009년 9월 2일 수정 ▶ 2009년 9월 14일 채택 ▶ 2009년 9월 18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1-0672 Fax 02-961-0671 E-mail southkim@khu.ac.kr

1) 『醫方類聚』에는 총 150개 이상의 도상이 수록되어 있다. 그 종류를 보자면, 오장육부도, 본초도, 진단에 관련된 도상, 양생도, 운기도, 부적, 부인과 관련 도상 및 각종 외과병증을 나타낸 도상 등 다양하여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의사학적 가치를 가진 五臟六腑圖는 이러한 圖像의 중요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sup>2)</sup> 또, 『鄉藥集成方』과 『醫林撮要』 등 여러 의서에서 소중한 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은 『東醫寶鑑』의 圖像중 明堂部位와 觀形察色圖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여러 의서의 圖像을 수집해서 분류하고 그 의미를 살펴, 이러한 圖像이 각 의서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圖像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지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한의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현재까지 의서에 수록된 도상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의 경우, 장부도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sup>3)</sup> 그 외에 오료팔과도와 운기도 등에 관한 연구는 인용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의학의 의서에 수록된 圖像에 관해 종합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웃 중국의 경우에는 圖像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있었는데, 우선 黃龍祥이 지은 『中國鍼灸史圖鑑』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4)</sup> 黃龍祥은 그의 책에서 도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한의학의 圖像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자세한 해설을 곁들여 도상의 이해를 도왔다.

또 다른 연구로 馬繼興의 『中醫文獻學』에 수록된 연구를 살펴 볼 수 있다.<sup>5)</sup> 그는 의학문헌과 고대의약문물을 소개하면서 의약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醫藥圖像, 의료기계, 고대약재, 침구동인 등을 들고 의서에 수록된 도상을 분류하고 설명하였다. 그것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最古의 도상인 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導引圖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醫藥圖像을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의서에 실린 圖像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추후의 숙제로 남겨두고, 우선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하는 『東醫寶鑑』에 수록된 도상을 연구함으로써 도상연구의 출발점을 삼기로 한다.

## II. 本論

『東醫寶鑑』에는 望診과 관련되어 2개의 圖像을 수록하였다. 그것은 바로 明堂部位와 觀形察色圖라는 圖像이다. 望診과 관련되어 『難經61難』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보고 아는 것을 일러 神이라 하고, 들어서 아는 것을 聖이라 하며, 물어서 아는 것은 工이며, 진맥을 하여 아는 것은 巧라고 한다.<sup>6)</sup>

위 문장은 望聞問切의 四診에 대한 함축적 내용으로 특히, 望診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望의 대상은 五色인데<sup>7)</sup>, 이것은 단지 色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드러나는 色과 형태 및 증상을 함축하는 것이다.

‘明堂部位’는 「外形篇」面門의 서두에 수록된 것으로 면부 望診의 기초가 되는 圖像이다. ‘觀形察色圖’는 小兒門에 수록되어 소아 진단의 중요한 圖像으로 소아의 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하는 얼굴의 진단부위를 표시하였다.

인체는 오장을 중심으로 육부와 표리관계를 이루고, 경락을 통하여 내외가 상통하며, 체표와 四肢 및 五官 등도 밀접한 관련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부의 병변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내장의 병변이 외부로 반영됨으로써 외부에 나타난 변화를 관찰하여 내재한 장부와 기혈의 병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望診은 이러한 내외의 관계를

2) 조선에서 『醫方類聚』가 편찬되면서 365권에서 266권으로 산삭되는 과정에서 장부의 그림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醫方類聚』 편찬자들이 장부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장부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醫方類聚』에 인용되어 있는 장부도는 장부이론에 충실함과 자세함이 『道藏』의 유사문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여서 정확한 양질의 판본을 조선의 의학자들이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부에 대한 이론을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醫方類聚』의 편찬의도가 조선의 대표적인 의서인 『東醫寶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身形門의 신형장부도와 五臟六腑門의 오장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6, p.48)

3) 장부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우열·이진홍·전병훈, 『『東醫寶鑑』의 신형장부도와 허준의 의학사상』, 『대한동의병리학회지』, 제10권 2호, 1996; 성민규·정장현, 신형장부도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Vol.21-3, 2008; 김대형, 『『東醫寶鑑』 신형문의 도가사상에 대한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호, 『東醫寶鑑』의 인체론, 한국학보, 1999, 제14호; 김태우·윤중화, 『『東醫寶鑑』의 신형장부도와 정기신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의료기공학회지』, Vol. 10, No. 1, 2007; 한봉재, 『華陀玄門內照圖』의 형성과 장부이론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07; 성민규, 『東醫寶鑑』 신형장부도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9.

4)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靑島出版社, 2003.

5)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과학기술출판사, 1990 pp43~49

6) 凌耀星 주편, 『難經校注』, 一中社, 1991, p.109. : “經言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脈而知之謂之巧”

7) 『難經校注』, p.109. : “望而知之者 望見其五色以知其病” -

기본으로 외부에 나타난 상황을 시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내부의 이상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법이다. 望診의 대상은 환자의 면색, 형체, 동태, 국소병변, 설태 및 분비물 그리고 정신상태를 포괄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면색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시되어왔다.<sup>8)</sup>

여기서는 먼저 面部 望診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明堂部位와 觀形色色圖의 내용을 살펴본 뒤, 두 圖像을 비교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面部 望診의 역사적 연원

面部 望診은 望診의 하나로 주로 望色이 이에 해당한다. 즉, 望色이란 환자의 面部 및 肢體에서 나타나는 색의 변화와 광택을 관찰함으로써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관한 문헌적 기원은 『黃帝內經』으로 여러 편에서 望色에 관한 다양한 의론을 펴고 있다.

#### ① 『黃帝內經』의 望診 이론

『黃帝內經』에서는 望診의 의의와 방법, 내용, 및 중요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술했다.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望診을 강조하고 神, 色, 形, 態의 관찰을 주장하였고, 망진과 기타 맥진, 문진 등과 참작하여야 함을 말하였다. 아울러 色診에 대한 논술이 자세하데, 面部五色과 피부색 및 目色, 血絡이 주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面部를 오행에 따라 상응하는 장부 부위로 나누어 질병 발생의 부위, 병세의 진행 정도 및 생사를 판별하였다.<sup>9)</sup> 얼굴에 대한 진단으로 인체의 질병을 파악할 있는 것은 음양오행 이론과 天人相應 이론에 근거한 것이며<sup>10)</sup> 또한, 얼굴에서 건강과 질병을 판단하는 기본원리는 『靈樞·邪氣藏府病形』에 실린 다음의 문장에서 확인된다.

12경맥과 365혈락은 모두 그 혈기가 위로 얼굴로 올라와서 空竅에까지 주행한다.<sup>11)</sup>

즉, 얼굴은 인체의 경맥과 낙맥이 모두 지나가는 부위이고, 경맥과 낙맥은 오장육부를 모두 거치므로 얼굴에 나타나는 형색으로 질병과 생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靈樞·五臟生成篇』에서는 면색의 平色, 病色, 死色에 대하여 논술했었는데 다음 내용은 망진에 의하여 생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논술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색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 청색이 말라죽은 풀과 같을 경우에는 죽고, 황색이 枳實과 같을 경우에도 죽으며, 흑색이 그을음과 같을 경우에도 죽고, 적색이 영진 피와 같을 경우에도 죽으며 백색이 메마른 뼈와 같을 경우에도 죽으니, 이것이 바로 오색이 나타나 죽는 경우이다.<sup>12)</sup>

그리고 面部의 分部色診은 『靈樞·五色篇』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五色篇」은 明堂, 闕, 庭, 蕃, 蔽, 耳門 등 얼굴의 五官에 해당하는 오장육부를 배속하여 각각의 부위에 나타나는 五色과 人迎脈, 氣口脈의 상태를 보아 질병을 진단하면서 예후를 판단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오관에 나타나는 五色과 색택의 여러 상태에 따라 주관하는 질병에 대하여 논술했다.<sup>13)</sup>

아울러 내경에서의 망진은 望神과 望色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으며 특히, 神氣의 유무를 살피는 것을 자주 언급하고 의자의 주관적인 안목을 강조하였다.<sup>14)</sup>

#### ② 望診 圖像의 종류

##### a. 『類經圖翼』<sup>15)</sup>의 望診圖

명대의 張介賓이 저술한 『類經圖翼』은 『類經』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설명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圖像을 수록하여 『內經』 이론에 관한 그림책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주로 運氣와 鍼灸 이론 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며 운기에 관한 도상과 경락 및 침구에 관한 도상을 수록하고 있어서 이 분야의 圖像연구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망진과 관련하여 보자면 『類經圖翼』은 우리에게 좋은

8) 이봉교, 한방진단학, 성보사, 1986, p.42.

9) 張樹生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1, pp.3~4

10) 김경철·이용태, 내경에 나타난 국소 부위 망진에 대한 연구, 동의한의연 제4집, 2000.12. p.56.

11) 김달호·이종형 共編譯, 黃帝內經 補註注解 靈樞, 의성당, 2002, p.119. :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注於面而走空竅”

1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1, p.39 : “故色見青如草莖者死 黃如枳實者死 黑如死者 赤如衄血者死 白如枯骨者死 此五色之見死也” 해석은 상계서 『黃帝內經 補註注解 靈樞』을 따랐음.

13) 黃帝內經 補註注解 靈樞, 앞 책, p.933.

14) 張錫二, 황제내경 소문 상에 나타난 望診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제2권 1호, 1998, p.291.

15) 중국 명나라 張介賓이 편찬하여 1624년에 간행된 의서. 전 11권. 도해 방식으로 『類經』 주석문의 부족을 보충한 것이다. 따라서 이름을 도익(圖翼)이라 하였고, 주로 운기(運氣 제1, 2권)와 침구(鍼灸 제3권~11권)의 2부분을 포괄하였다. 운기는 오운육기 학설에 관한 논술과 도표로서 모두 80여 편이고, 침구는 먼저 경락수혈(經絡俞穴)을 논하고, 다음에 鍼灸要穴歌와 諸證灸法要穴 등을 실었다. 내용 중에 특히 침구 부분은 관련 있는 자료를 널리 인용하고 있어 상당한 참고 가치가 있다. -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靈樞·五色篇』의 面部 명칭	해당 배속 기관	얼굴 부위 <sup>17)</sup>
庭	首面	이마의 가운데
闕上	咽喉	미간의 위쪽
闕中	肺	미간에 해당
下極	心	두 눈 사이, 山根
直下	肝	코대(鼻柱)
肝左	膽	코대 양쪽
下	脾	코끝(準頭)-明堂, 面王
方上	胃	코끝의 양 옆
中央	大腸	영향혈의 바깥쪽, 관골의 아래
挾大腸	腎	뺨의 위쪽 부위
當腎	臍	신 부위 아래
面王以上	小腸	코끝의 위쪽과 양쪽 관골 안쪽
面王以下	膀胱子處	인중 부위

표 2 藏府色見面部圖의 내용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東醫寶鑑』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類經圖翼』은 面部望診에 관한 3쪽의 도상을 수록하고 있다. 四卷의 『經絡』 부분에 실려 있으니 글자로만 보았던 망진의 내용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얼굴의 모습을 그리고 『內經』의 원문에 실린 망진 내용을 세밀하게 표시하였다. 세 도상의 명칭은 面部圖와 藏府色見面部圖 및 肢節色見面部圖로 장개빈이 『內經』의 원문을 토대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세 도상은 面의 각 부위에 해당하는 명칭을 표기하고 배속하는 장부와 肢節을 기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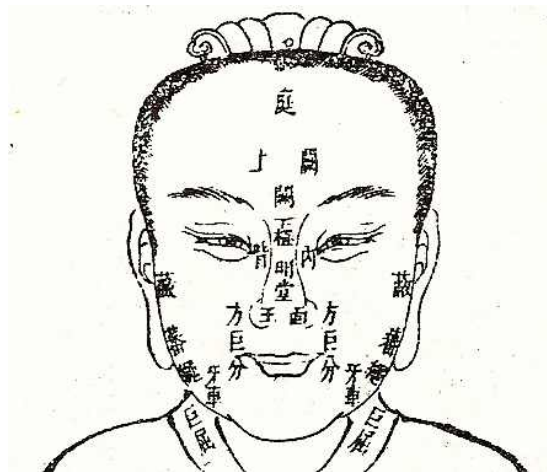


그림 1 『類經圖翼』의 面部圖

먼저, 그림 1 面部圖는 『靈樞·五色篇』의 明堂, 闕, 庭, 蕃, 蔽, 耳門 등의 명칭 그대로 이름 지은 도상이다. 明堂은 鼻에 해당하며, 闕은 眉間이며 庭은 顏(여기에서는 이마의 의미)이고, 蕃은 頰側이며 蔽는 耳門에 해당한다. 그리고 오장은 중앙에 차례로 배열되고 육부는 그 양측면에 붙어 있다. 또한 오장이 화평하여 흉중에서 편안히 있어야만 정상색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sup>16)</sup>

그림 2 藏府色見面部圖는 『靈樞·五色篇』의 면부에 분포하는 장부 망진부위에 관한 도상인데, 오장과 육부의 얼굴 해당부위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상을 표시하였다. 남자의 경우 小腹痛과 卵痛, 莖痛을 예로 들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膀胱과 子處(子宮) 부위의 痛을 예로 들었다. 肢節色見面部圖는 肩, 臂, 手 및 膺乳, 背, 股, 膝, 脛, 足, 股裏, 膝臑의 얼굴 해당부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肢節色見面部圖는 인체의 肢節부위의 증상이 얼굴로 드러날 때 해당하는 부위의 명칭을 기재하였으며 도상은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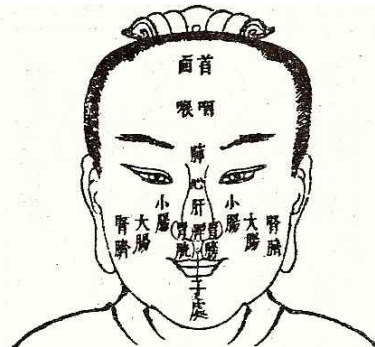


그림 2 『類經圖翼』의 藏府色見面部圖

16) 張介賓, 類經圖翼, 대성문화사, 1989, p.91. : “明堂者鼻也 闕者眉間也 庭者顏也 蕃者頰側也 蔽者耳門也 其間欲方大 去之十步 皆見于外 如是者壽 必中百歲 明堂骨高以起 平以直 五藏次于中央 六府挾其兩側 首面上于闕庭 王宮在于下極 五藏安于中 眞色以致 病色不見 明堂潤澤以清 五官惡得無辨乎”

17) 구체적인 부위의 명칭은 다음의 내용을 따랐음. - 노진우, 靈樞·五色에 대한 연구, 우석대 박사학위논문, 2007, pp.3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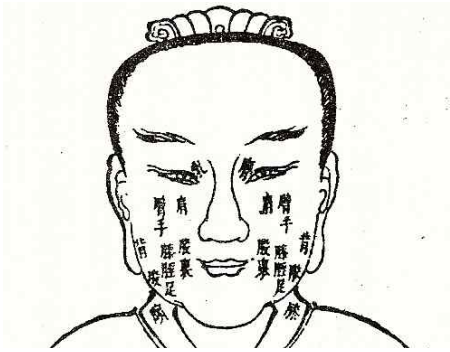


그림 3 『類經圖翼』의 肢節色見面部圖

b. 『望診遵經』의 望色十法

이것은 清代의 의가인 王宏<sup>18)</sup>이 『靈樞五色篇』에 나오는 望色이론을 기초로 하고 자신의 임상경험을 참고하고 보완하여 제시한 망진의 방법이다. 내용은 그의 저서인 『望診遵經』에 상세히 논술되어 있다. 이것은 望色을 기초로 질병의 表裏, 寒熱, 陰陽, 虛實, 新舊, 輕重을 감별하는 내용이다. 그가 제시한 望色十法은 얼굴에 나타나는 色의 浮沈, 清濁, 微甚, 散搏, 澤夭를 잘 관찰하여 진단하는 방법이다. 이를 표로 만들면 표 2와 같다.<sup>19)</sup>

2) 明堂部位



그림 4 明堂部位

明堂部位는 『外形篇面門』에 수록된 도상이다.(그림 4) 그 특징은 오행상응을 기초로 하는 望診에 필수적인 도상이라는 점인데 얼굴의 각 부위가 오행에 따라 배속되고 다

시 오행에 따라 인체 내부의 오장과 상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굴의 다섯 부위의 형태와 색깔에 따라 몸 안의 질환을 살펴 볼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명당부위를 설명함에 있어 우선 얼굴에서 오장에 해당되는 부위를 제시하였다. 즉, 額은 天庭이라 하고 心에 속하며, 頰는 地閣이라 하며 腎에 속한다. 가운데에 있는 鼻는 脾에 속하며 左頰은 肝에 속하며 右頰은 肺에 속한다. 이것은 五臟의 위치를 五行의 相生圖에 해당하는 부위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面的 위치	부위 명칭
肝	左頰	없음
心	額	天庭
脾	鼻	面中
肺	右頰	없음
腎	頰	地閣

표 4 面部의 오장 배속표

面部에서 오장의 부위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面色이다. 그래서 察色하여 辨病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面部에서 오장에 해당하는 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를 나누어 이름 짓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얼굴색으로 병을 진단하는 것을 서술하였다.

十法	形狀 및 主病證
浮	얼굴색이 피부의 표부로 떠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으로 表病을 주재한다.
沈	얼굴색이 피부의 내부로 가라앉아 숨어있는 것으로 裏病을 주재한다.
清	얼굴색이 맑고 밝은 것으로 陽證을 주재한다.
濁	얼굴색이 흐리고 어두운 것으로 陰證을 주재한다.
微	얼굴색이 얇고 묽은 것으로 正虛를 주재한다.
甚	얼굴색이 두텁고 짙은 것으로 邪實을 주재한다.
散	얼굴색이 성기고 흩어지는 것으로 新病을 주재하며 病邪가 풀리려 하는 것이다.
搏	얼굴색이 쌓이고 막혀 물린 것으로 久病을 주재하며 病邪가 점차 모이려 하는 것이다.
澤	얼굴색이 윤기가 있고 광택이 나는 것으로 기혈이 아직 쇠하지 않아 병정이 가볍고 쉽게 치료됨을 뜻한다.
夭	얼굴색이 야위어 말라 까칠한 것으로 기혈이 이미 쇠하여 병정이 무겁고 치료가 어려움을 뜻한다.

표 3 望色十法

18) 王宏(1836~?). 19세기 중엽 청대의 의가로 자는 廣庵, 그는 망진에 조예가 깊었으며 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망진이 四診의 으뜸이라 주장하고, 청대 말기에 『望診遵經』 2권을 저술하였다. 또한 『神農本草經註解』 16권과 『傷寒論集解』 등을 저술하였으나 모두 소실되었다. (이영진, 『望診遵經』에 대한 연구, 원광대박사학위논문, 2009, p1 의 주석을 재인용하였다)

19) 이영진의 상계 논문, p.43.



이 圖像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당의 색을 관찰하여 병의 예후를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환자의 生死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마의 정가운데에서부터 양눈사이와 코에 이르는 부위와 額角과 方廣(양 태양혈 부위)은 命門地로서 이곳이 생명과 직결되며 병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부위라고 하였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위는 明堂, 즉 鼻다. 그래서 五色은 오로지 明堂에서 결정한다고 하였다.<sup>20)</sup> 그리고 얼굴에서 살펴야 할 五色은 『東醫寶鑑』 본문에 ‘面見五色’이란 제목으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雜病篇 卷一 審病’에서는 ‘明堂察色’과 ‘五色占吉凶’이란 제목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이러한 중요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진찰할 때에 잘 살피지 않아 명당부위 望診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 3) 觀形察色圖



그림 5 觀形察色圖

이 도상은 ‘小兒門’에 있는 것으로 소아의 진찰과 관련된다. 소아는 말을 잘 하지 못하므로 증상을 묻기가 어렵고, 자신이 아픈 곳을 잘 가리키지 못하므로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소아의 병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또 소아는 장부가 튼튼하지 못하고 혈기가 왕성하지 못하며 쉽게 허해지고 쉽게 실해지며 쉽게 싸늘해지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쉽다. 그래서 『東醫寶鑑』에서 ‘남자 열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보다 부인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어렵고, 부인 열 사람을 치료하기보다 소아 한 명의 병을 치료하기 어렵다.’<sup>21)</sup> 고 말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소아병의 진단법 5가지<sup>22)</sup>를 제시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얼굴의 부위 명칭, 장부 배속, 오행, 방위에 대한 정보가 함께 있고, 이를 한데 묶는 기준은 五行원리이다. 『東醫寶鑑』에서 보는 인체관의 핵심을 한단어로 정의하면 ‘四大五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형찰색도와 명당부위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잘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觀形察色圖와 明堂部位의 비교

허준이 明堂部位를 그릴 때 어떤 인물을 보고 그렸거나 혹은 생각 속의 얼굴모습을 그렸을 것이다. 이때 모델로 삼은 얼굴은 조선 중기 당시의 선호하는 얼굴형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아주 특이한 모습의 얼굴이나 이목구비가 균형을 이루지 않은 얼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잘생긴 얼굴, 명당 부위를 나타내기에 좋다고 판단되는 얼굴을 선택했으리라 것이다. 따라서 위의 明堂部位는 당시의 醫家 혹은 觀相家의 입장에서 표준으로 삼을 만한 본보기의 얼굴인 것이다.

먼저 明堂部位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덕한 인상을 준다. 얼굴이 가늘고 작은 것보다는 크고 넓은 얼굴이 후덕한 이미지를 준다. 또한 하관이 발달하였고 턱이 좁지 않고, 이마가 넓고 귀 또한 귓불이 커서 인덕과 재복이 있는 것처럼 그렸다. 이목구비도 확실하며 인중도 윤곽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觀形察色圖의 소아 얼굴은 어떠한가? 소아의 경우는 얼굴의 望診을 통해 성인보다 질병과 증후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하므로 표시해야 할 부위가 많다. 그래서 얼굴의 거의 전 부분에 명칭을 표시하였다.

觀形察色圖에서 明堂部位로 즉, 소아에서 성인으로 바뀔 때의 변화모습은 어떠한지 비교를 해보자.

우선,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약해진다. 이것은 눈의 초점을 보아도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 있고, 쌍꺼풀이 생기고, 피부가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둥글고 힘이 있는 느낌이었으나 明堂部位에서는 얼굴이 퍼지고 힘이 약간 처진 느낌을 준다.

정수리 부분은 額이라 명칭 하였는데, 이 부분은 소아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泉門 부위이다. 여기에서는 腎氣의 유무를 살피는 부위로 解顛와 顛填, 顛陷이 있는지 진단하

20) 『東醫寶鑑』, 앞 책, p.337 : “五色獨決於明堂, 明堂者鼻也”

21) 『東醫寶鑑』, 앞 책, p.632 : “寧醫十丈夫 莫醫一婦人 寧醫十婦人 莫醫一小兒 皆小兒難問證 難察脈 治之尤難故也”

22) 손가락의 삼관을 보는 방법(虎口三關脈法), 맥을 보는 방법(診小兒脈法), 얼굴에 나타난 빛깔을 보는 방법(觀形察色), 눈동자를 보는 방법(五體以頭爲尊一面性神可恃), 목소리를 듣는 방법(聲有輕重啼有乾濕)이다. - 東醫寶鑑, 상계서, pp.634~635

는 부위다. 解顛란 나이는 어린이가 숫구멍이 아물지 않고 벌어져 있는 것으로 腎氣가 온전하지 못하면 腦髓가 부족하기 때문에 숫구멍이 아물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東醫寶鑑』에서는 六味地黃元, 八物湯의 처방에 가감을 하여 치료하였다.<sup>23)</sup> 顛填은 숫구멍이 부어오른 것이다. 이는 寒熱의 邪氣, 肝氣의 치성, 風熱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顛陷은 반대로 숫구멍이 꼭 끼진 것이다. 이것은 기혈허약으로 뇌수가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소아는 망진에서 정수리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 보통 건강한 아이는 정수리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데, 뇌수막염인 경우 뇌압 상승으로 인해 단단해지고 통증이 생긴다. 성인에게 顛의 표시도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양 이마의 측면에서는 소아는 太陽과 太陰을 표시하였는데, 성인은 太陽만 표시하였다. 즉, 소아에서는 太陽과 太陰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성인에서는 太陽으로 나타나고 소아일때 太陰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던가 다른 부위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소아의 경우 태양 부위에서 놀란 것, 傷寒, 乳積, 驚風 등을 판단한다.

눈썹이 난 방향이 다르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눈동자의 위치와 기운도 차이가 있다. 소아는 눈동자가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기운이 넘치며 바라보는 초점도 명확한 반면에 성인의 경우에는 눈의 힘이 약한 느낌이 들고 초점도 차이가 있다. 코가 시작되는 부위도 차이가 있는데 觀形色色圖에서는 눈썹의 상단 부분에서 시작하고, 明堂部位에서는 눈썹 하단부분에서 시작된다. 콧망울은 작았다가 크게 변화되었다.

인중은 소아에서는 윤곽이 없고, 성인에서는 확실한 윤곽이 있어서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소아와 성인에서는 인중을 통한 진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소아의 경우 인중이 검은 빛을 띠면 설사로 죽고, 붉은 빛을 띠면 熱痰이 막힌 것이고, 푸른빛을 띠면 驚風에 해당하고 검은 빛이 나타나면서 아픈 것은 中惡이며 누런 빛을 띠면 飮食傷에 해당한다.

어릴수록 얼굴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 부위가 표시된 글자를 보면 그 부위에서 증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은 소아에서는 얼굴로 그만큼 기혈의 흐름이 쉽게 나타나고 반응이 빠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觀形色色圖	明堂部位	觀形色色圖	明堂部位
상정	顛			
	額 心 天庭	天 心 天庭	太陰 太陽 月角 方廣	太陽 方廣
	司空	司空	魚尾 臉	
	印堂	印堂		
중정	山根	山根 明堂		
	準	脾	頰肺 頰肝	右頰肺 左頰肝
	脾	鼻準	腮	
	人中	人中		
하정	顛	承漿		
	頰 腎 地閣	地閣 腎 頰		

표 5 觀形色色圖와 明堂部位 비교표

### III. 結論

인체는 오장을 중심으로 육부와 표리관계를 이루고, 경락을 통하여 내외가 상통하며, 체표와 四肢 및 五官 등도 밀접한 연관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부의 병변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내장의 병변이 외부로 반영됨으로써 외부에 나타난 변화를 관찰하여 내재한 장부와 기혈의 병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望診은 이러한 내외의 관계를 기본으로 외부에 나타난 상황을 시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내부의 이상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법이다. 望診의 대상은 환자의 면색, 형체, 동태, 국소병변, 설태 및 분비물 그리고 정신상태를 포괄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면색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시되어왔다.

‘明堂部位’는 『外形篇』 面門의 서두에 수록된 것으로 면부 望診의 기초가 되는 圖像이다. 그 특징은 오행상응을 기초로 하는 望診에 필수적인 도상이라는 점인데 얼굴의 각 부위가 오행에 따라 배속되고 다시 오행에 따라 인체 내부의 오장과 상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굴의 다섯 부위의 형태와 색깔에 따라 몸 안의 질환을 살펴 볼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명당부위를 설명함에 있어 우선 얼굴에서 오장에 해당되는 부위를 제시하였다. 즉, 額은 天庭이라

23) 『東醫寶鑑』, p.637. : “腎主虛無實 腎病目無精光畏明體骨重 腎虛證者兒本虛法 由胎氣不盛則神氣不足 目中白睛多 顛解顛開”; 『東醫寶鑑』, p.652. “解顛年大小兒頭縫不合如開解故曰解顛 此由腎氣不成故也 腎主骨髓而腦爲髓海 腎氣不成則髓不足故不能合也 凡得此疾者不過千日其間 亦有數歲者乃成廢人也<湯氏> 生下而顛不合者腎氣不成故也長必少笑更有目白睛多面眇白色瘦者多愁少喜也<錢乙> 解顛即小兒頭縫不合也 宜服六味地黃元(方見虛勞) 或八物湯(方見虛勞) 加酒炒芩連煎服外貼三辛散天南星散 且以頭巾裹遮護之自合亦良法也<錢乙>”

하고 心에 속하며, 頰는 地閣이라 하며 腎에 속한다. 가운데에 있는 鼻는 脾에 속하며 左頰은 肝에 속하며 右頰은 肺에 속한다. 이것은 五臟의 위치를 五行의 相生圖에 해당하는 부위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面部에서 오장의 부위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面色이다. 그래서 察色하여 辨病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面部에서 오장에 해당하는 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를 나누어 이름 짓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얼굴색으로 병을 진찰하는 것을 서술하였다.

이 圖像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당의 색을 관찰하여 병의 예후를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환자의 生死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觀形察色圖’는 小兒門에 수록되어 소아 진단의 중요한 圖像으로 소아의 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하는 얼굴의 진단부위를 표시하였다. 이 도상은 「小兒門」에 있는 것으로 소아의 진찰과 관련된다. 소아는 말을 잘 하지 못하므로 증상을 묻기가 어렵고, 자신이 아픈 곳을 잘 가리키지 못하므로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소아의 병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또 소아는 장부가 튼튼하지 못하고 혈기가 왕성하지 못하며 쉽게 허해지고 쉽게 실해지며 쉽게 싸늘해지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쉽다. 그래서 『東醫寶鑑』에서 ‘남자 열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보다 부인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어렵고, 부인 열 사람을 치료하기보다 소아 한 명의 병을 치료하기 어렵다.’ 고 말하였다.

얼굴의 부위 명칭, 장부 배속, 오행, 방위에 대한 정보가 함께 있고, 이를 한데 묶는 기준은 五行원리이다. 『東醫寶鑑』에서 보는 인체관의 핵심을 한단어로 정의하면 ‘四大五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형찰색도와 명당부위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잘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처음 살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望聞問切의 맨 첫머리에 望診이 있음을 보아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東醫寶鑑』에서도 진단에 있어 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明堂部位’ 圖像을 제시한 것도, 환자를 진찰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의 얼굴을 잘 살펴볼 것을 강조한 것이다. 望診의 주요한 내용은 ‘觀形察色’이다. 그 형태를 보고 얼굴색을 관찰하여 그 사람이 타고난 체질은 어떤지, 현재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망진은 물론 문진과 문진, 절진을 통해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94.
- 張介賓, 『類經圖翼』, 대성문화사, 1989.
- 李梴, 『編註醫學入門』, 대성문화사, 1983.
- 한의학대사전. 의사문헌편.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1985.
- 민중서관 편집국, 漢韓大辭典, 민중서관, 1990.
- 김남일·신동원 · 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2005.
- 김달호·이중형 共編譯, 『黃帝內經 補註注解 靈樞』, 의성당, 2002.
- 金達鎬·이중형 編譯, 『補註注解 黃帝內經 素問』 의성당, 2002.
- 凌耀星 주편, 『難經校注』, 一中社, 1991.
- 맹웅재 외, 『강좌 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 王淑民 ·羅維前 主編, 『形象中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 이봉교 편저, 『한방진단학』, 성보사, 1986.
- 이봉교 편저, 『한방소아진단학』, 성보사, 1992.
- 張樹生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1.
- 정규만 편, 『동의소아과학』, 행림출판, 서울, 1992.
-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 허준 지음·진주표 주석, 『新對譯東醫寶鑑』, 법민문화사, 2009.
- 홍원식 외, 『한의학대사전 기초이론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9.
- 홍원식 편저,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4.
-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1.
- <논문>
- 김남일,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關한 試論, 한국 의사학회지 17권 2호, 2004.
- 김경철·이용태, 『內經』에 나타난 국소 부위 망진에 대한 연구, 『동의한의연』 제4집, 2000.12.
- 김기욱, 운기학설의 이론 및 그 운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6.
- 김춘배, 중국고대에서 당대까지 진단학사에 관한 연구, 대전대 박사학위논문, 2003.
- 박성규, 『東醫寶鑑』을 통해 살펴 본 허준의 인간관,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성민규·정창현, 신형장부도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Vol.21-3, 2008.
- 이가은, 소아의방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2005.

이흥구·윤창열, 명대의 진단학 발전사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3.

이영진, 『望診遵經』에 대한 연구, 원광대박사학위논문, 2009.

張錫二, 황제내경 소문 상에 나타난 望診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원진단학회지 제2권 1호, 1998.